

#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 기독교대안학교 중고생을 중심으로 -

홍 기 순(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 박사 수료)

### 논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대안학교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반성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7명의 학생과 1명의 학부모, 1명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해 드러난 점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공교육 체제의 엄격한 규율 및 폭력적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효율적 진로, 그리고 신앙에 대한 기대로 대안학교를 선택하였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은 기독교학생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유대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인은 교사와의 신뢰관계와 자율적 분위기였다. 다만 입시과목 위주로 구성된 교육과정과 신앙교육이 기독교대안학교의 차별성과 대안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개방성의 부족이 학생들의 사회적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주제어 : 기독교대안학교, 중고등학생, 경험, 질적 연구, 현상학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교이다. 하지만 학교교육의 획일성과 경직성, 비인간화, 경쟁 및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로 인해 갈수록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문화의 폭력성과 중도 탈락 현상도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

라 1990년대부터 제도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교육이념에 따라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안적 움직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도에 의해 설립된 새로운 교육 공동체는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학교교육을 대체하는 다른 방식의 청소년 교육과 문화를 일구어 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립된 대안학교는 1992년 경기도 광명의 ‘창조학교’를 비롯하여 대구의 ‘민들레 만들레’(1993), ‘자유학교 물꼬’(1993), 최초의 전일 기숙사형인 ‘간디청소년학교’(1997) 등이 있으며, 갈수록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이종태, 2001 : 136-144). 2007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전국 중고등 대안학교의 수는 73개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안학교의 상당 부분을 종교단체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성화학교 중 75%가 종교재단이 설립한 것인데 그 중 기독교가 11개인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출발 이후 10년이 넘는 시기를 감안할 때 상당한 성장을 해 왔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대안학교에서 기독교의 참여 비율과 영향력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독교계의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대안학교 설립·운영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 2009, 10, 27).

기독교대안학교가 대안적 교육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가 정체된 미션스쿨에 대한 돌파구로서 신앙인 양성에 집착하고 있다거나, 이와 반대로 기독교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등 다방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전민배, 2007 ; 한희자, 2002). 이러한 상황에서 Shirley(2010)가 밝힌 바와 같이 기독교대안학교의 현실을 이해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문적·실천적 측면에서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한 학문적 성과는 실천적 추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학교의 설립배경과 교육과정, 그리고 운영실태를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에 의존하여 진행되어 왔다(장선희, 2002 ; 전민배, 2007 ; 한희자, 2002 ; 황규석, 2003). 최근에는 강영택(2010)이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독교대안학교가 학생들의 신앙과 인성, 삶의 목표 설정, 학업에 대한 자발성과 흥미, 학교 만족도 등 내면적인 교육성과를 성취하고 있으며,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었으며, 조인진(2010)은 이러한 교육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연구 한계를 뛰어넘어 학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안학교는 일반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다루어 온 적응(Shankland et al., 2010 ; 이원아·김동일, 2009), 학교생활만족도(이미선, 2008 ; 장신국, 2002), 진로(김종순, 2005 ; 박지희, 2005 ; 배은자, 2005 ; 이명훈, 2005 ; 김서영·백지숙, 2009), 문제행동(신효진·노충래, 2007), 사회적 지지(박경일·이상주, 2004 ; 이상주, 2004), 심리·정서(Barr & Higgins-D'Alessandro, 2007 ; 조옥귀·임창수, 2004), 교사교육(Gregory, 1998)와 같은 다양한 변인들을 도입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서 학문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문헌이나 사례에 의존한 연구는 기독교대안학교의 피상적 수준을 파악하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어떠한 교육 및 삶의 경험하고 있는 지”, 또 그 경험은 일반학교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와 같은 본질적 측면에 대한 맥락적, 심층적 이해가 불가능하다. 비록 백성현(2008)이 기독교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생활과 학교생활의 만족도 관계를 연구하여 두 변인 간 상관 관계를 밝혔지만 이것은 설문지를 통해 수량화한 결과이므로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Wodnicki(2009)가 현상학적 방법으로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경험을 드러낸 바 있지만 기독교대안학교의 상황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교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학생의 목소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기독교대안학교에 재학생인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심층적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최근 허창수(2010)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경험을 질적 사례연구로 소개함으로써 이들의 존재 의미와 변화 과정을 생생하게 밝혀 낸 노력

은 좋은 선례가 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험과 의미를 맥락적,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독교대안학교의 정책, 교육과정, 복지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함과 동시에 기독교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 2. 연구 방법 및 과정

###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독교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험을 연구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의 한 분야인 반 매넨(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Hermeneutic Phenomenology)을 적용하였다. 해석학적 현상학이란 어떤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을 연구자가 일체의 선입견이나 판단을 중지한 상태에서(epoche) 있는 그대로(as it is) 해석하고 기술하는 연구 방법을 말한다(Creswell, 2005). 반 매넨(1990)은 해석학적 현상학을 일상적 경험에 대한 회고적 반성을 통해 그것의 본질과 심층적 의미를 생생하게 밝히는 활동이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현상과 경험이 ‘정말로 어떤 것인가’라는 현상학적 질문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그는 어떤 현상과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석학적 현상학의 글쓰기를 강조하였는데, 특히 네 가지 기본적인 실존체(existentials), 즉 체험된 신체(lived body), 체험된 시간(lived time), 체험된 공간(lived space), 그리고 체험된 관계(lived relationship)를 그 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독교대안학교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현상학적 질문에서 시작하고, 그들의 체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실존체의 맥락에서 파악하여 글쓰기를 통해 전달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므로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 방법을 통해 기독교대안학교 학생들은 연구의 참여자의 위

치에서 자신이 체험하고 해석한 학교 경험을 이야기하며, 연구자는 어떠한 선입견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민감성과 개방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들의 모습을 주제에 따라 반성적 고찰을 토대로 생생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간과해 왔던 기독교대안학교 학생들의 내부자적 관점이 전달될 것이다.

## (2) 연구 과정

### ①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참여자 선정을 위해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건, 장소, 사람 등을 의도적으로 표본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기독교대안학교 두 곳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7명과 학부모 1명, 학교 관계자 1명으로 총 9명이었다. 학부모와 학교 운영위원과의 면접은 학생들의 경험을 뒷받침하며, 다각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A학교의 경우 연구 취지를 이해하고 기꺼이 협력해 준 이사 겸 목사의 도움으로 중학생 2명, 고등학생 4명, 운영위원 1명이 참여하였다. B학교는 연구자의 지인인 중학생과 그 어머니가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사항 (2010년 3월 현재)

학교	이름(가명)	성별	학년 (나이)	첫 입학 시기	재학 기간
A학교	유**	여	중3 (16세)	중1, 9월부터	1년 6개월
	서**	남	중2 (15세)	중1, 4월부터	11개월
	정*은	여	고3 (18세)	중2, 11월부터	3년 4개월
	정*빈	남	고3 (18세)	중1, 3월부터	5년
	선**	남	고3 (18세)	중3, 3월부터	3년
	신**	여	고2 (17세)	중3, 5월부터	1년 10개월
	운영위원	남	51세		
B학교	이**	여	중2 (15세)	중1, 9월부터	6개월
	학부모	여	45세		

### ②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9년 6월 A학교의 운영위원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2010년 1월까지 정기적 만남을 통해 A학교의 실태와 설립 과정, 교과 과정과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으며, 2009년 10월과 2010년 1월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과 교사의 생활을 관찰하였다. A학교 학생들과의 면접은 2010년 1월에 이루어졌는데, 한 명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장소는 A학교의 빈 교실과 주변 음식점에서 진행하였다. B학교 학생은 2010년 1월 중순에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어머니와 함께 2시간 30분에 걸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에 앞서 연구의 취지와 과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은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자발적인 진술을 하도록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시작하였으며, 면접 과정에서 연구의 지향을 잃지 않고 연구 주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반구조화 형태의 후속질문을 보완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은 대안학교에 오게 된 이유, 일반학교와의 차이점, 교육과정, 생활,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일반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진로, 대안학교 생활의 장점 및 어려운 점, 대안학교 생활을 통한 변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면접 과정은 모두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전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분량은 56 페이지에 이르렀다. 전사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체험의 본질과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으며, 글쓰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연구 참여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보완하였다. 글쓰기를 위해 전사한 자료뿐만 아니라 학교를 방문하여 관찰한 것, 학교에 관한 자료들, 교실 및 교무실의 환경에 대한 메모 등 대안학교 및 학생과 연관된 것을 최대한 수집하고 활용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와 기독교 분야에서 박사과정에 있거나 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 3인의 자문과 검토를 받음으로써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체험의 본질과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 읽기와 주제별 구조화 작업을 거쳤고, 거듭되는 반성(reflection)과 통찰로 체험의 본질과 의미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② 자료분석 및 자료의 엄격성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제별 분석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전사한 면접 자료를 읽어나가면서 부호화,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며, 이 가운데에서 본질적 주제와 하위주제, 또는 새로운 범주를 구성해 나가는 방법을 반복하면서 주제의 최종 목록을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부호화,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이면서 입체적인 목록을 구조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5개의 본질적 주제 및 각각 2개의 하위주제를 목록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4가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그리고 중립성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양적 연구의 타당도에 해당하는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자로부터 대안학교에 관한 기본 이해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학교 관찰과 면접에 앞서 라포형성을 위한 대화 및 식사시간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적용성을 위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참여자를 올바르게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의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였다.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일관성을 위해 현상학적 방법으로 논문을 썼던 박사과정 이상 3인의 자문과 협의를 거쳤다.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중립성을 위해 대안학교에 관한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였다.

## II. 본론 : 글쓰기 및 해석

반 매닌(van Manen, 1990)은 반성과 실천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현상학적 글쓰기를 강조하였다. 기독교대안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한 반성은 분석의 과정을 거쳐 글쓰기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 갔다. 현상에 대한 드러냄은 실천적 관계와 연결되어 그들의 현상과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텍스트가 된다. 여기에서는 반 매닌의 신체성,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의 실존체에 대한

현상학적 반성을 거쳐 이들의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기술과 해석을 통해 드러내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언어로 전달된 사실을 <표 2>와 같이 다섯 개의 본질적 주제의 각각의 하위주제로 분류하였다.

〈표 2〉 본질적 주제와 하위 주제

본질적 주제	하위 주제
1. 기독교대안학교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1) “학교가 감옥 같고 자유가 없고” (2) “신앙도 좋아지고 대학도 잘 간다고 해서”
2. 기독교대안학교라는 곳	(1) “타락한 세상에서 도피성 같은 곳” (2) “너무 차단돼요, 바깥하고요”
3. 기독교대안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1) “우리가 알아서 해요” (2) “쓸데없이 앉아 있는 시간이 없어요”
4. 교사와의 관계	(1) “우릴 사랑하니까 배신할 수 없잖아요” (2) “선생님들의 힘, 그리고 간섭”
5. 또래와의 관계	(1) “서로 감싸 주고 서로 도와줘요” (2) “서로서로 영향을 받아요. 같이 가자는 분위기에요”

### 1. 기독교대안학교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학생들이 일반학교를 다니다가 대안학교를 찾게 되는 이유는 대개 일반학교에서 경험한 부정적 요인에 대한 실망과 그곳에서 채울 수 없었던 개인적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면접에 응한 학생들의 경우 일반학교와 관련된 부정적 경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일반학교의 지나친 규제, 둘째, 일반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적 분위기, 셋째, 일반학교의 교육방식에 대한 불만족이다. 이러한 교육 현실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일반학교에서 채울 수 없었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원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명한



진로선택의 가능성과 신앙교육으로 드러나고 있다.

(1) “학교가 감옥 같고 자유가 없고”

일반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경험한 부정적 요인들은 등교시 교문 앞 풍경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솔직히 저희 다니던 학교가 선생님들이 엄격하고 규칙, 머리로 되게 심하게 잡고요, 교복도 한복이었는데 막 즐기면 막 선생님들이 가만두지 않고 선생님들이랑 마찰이 너무 크고 해서...(선\*\*, 고3)

일반학교에서는 학생부에서 엄청 잡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요, 친구들이랑 욱도 많이 하곤 했어요(정\*은, 고3)

공학은 교문에서 막 잡잖아요. 치마 요만큼이라도 짧으면 잡고 머리가 조금이라도 길면 잡고.(이\*\*, 중 2)

이와 같이 쫓고 쫓기는 일상이 매일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자라난다. 이러한 정서는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폭력적 관계로 표출되곤 한다. 학생들은 학교 내 폭력적 분위기를 벗어나 보다 안전한 장소를 찾아 대안학교를 찾는다.

일반학교는 친구랑 놀다보면 욱도 그냥 자연스런게